

새 정부 첫 국무총리에 김민석 지명… 국정원장 이종석

李 정부, 첫 주요 인선 발표

비서실장에 강훈식 의원 발탁
안보실장에 장흥 출신 위성락
경호처장에 보성 출신 황인권
대통령실 대변인 강유정 의원
“전문성·정치력·소통능력 갖춰”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새 정부의 첫 국무총리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을 지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직접 새 정부의 첫 인사를 발표하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에 대해, “김 의원은 풍부한 의정활동 경험과 민생 정책역량, 국제적 감각과 통합의 정치력을 갖춘 인사로 위기 극복과 민생경제 회복을 이끌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 당대표재임시 수석최고위원으로 호흡을 맞췄던 김 의원의 지명은 당과 국회를 국정 운영의 파트너로 삼겠다는 의지가 담겼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국정원장 후보자로는 이종석 전 통일부장관이 지명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인사브리핑에서 새 정부 첫 인사 발표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종석 국정원장 후보자,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이 대통령, 강훈식 비서실장, 위성락 안보실장, 황인권 경호처장.

연합뉴스

이종석 국정원장 후보자는 통일부 장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장을 역임한 외교안보통일 전문가다.

특히 북한 문제를 연구하고 정책을 집행했던 전문성을 토대로 경색되어 있는 남북관계 개선의 돌파구를 열 전략을 펼

칠 인사로 평가된다.

대통령실 내부 고위급 인선도 발표했다.

대통령 비서실장으로는 민주당 강훈식 의원을 발탁했고, 안보실장에는 장흥 출신인 위성락 국회의원이 임명됐다.

강훈식 의원은 충남 출신 3선 의원으로, 70년대 생 첫 대통령 비서실장이다.

이 대통령은 “대선을 총괄한 전략가이자, 경제와 예산에 전문성을 가져 향후 국정 조력자로서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위성락·강유정 비례의원직, 손술·최혁진 승계

李대통령·강훈식, 지역구 사퇴 인천계양·충남아산을 보궐선거

이재명 대통령이 4일 더불어민주당 위성락·강유정 의원을 각각 국가안보실장과 대통령실 대변인으로 발탁하면서, 이들의 비례대표 의원직은 손술 전 진보당 수석 대변인과 최혁진 전 문재인 정부 청와대 사회경계제비서관이 승계한다.

지난해 4월 치러진 제22대 총선에서 민주당과 진보당 등 당시 야권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당연합을 만들어 비례대표를 공천했고, 이들 중 14명이 당선됐다.

더불어민주당연합 비례대표 후보 순위

15번은 손 전 대변인, 16번은 최 전 비서관이었다. 이들이 각각 위 의원과 강 의원의 비례대표 의원직을 이어받을 예정이었다.

이화여대 총학생회장 출신인 손 전 대변인은 30세(1995년생)로 22대 국회 최연소 의원이 된다.

대통령비서실장으로 임명된 3선 강훈식 의원(충남 아산율)도 대통령실 합류에 따라 의원직을 사퇴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도 이날 의원직을 사퇴함에 따라, 인천 계양율과 충남 아산율은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치르게 됐다.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김민석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서울=김선욱 기자

李, 계엄선포 장소서 브리핑 “아무도 없어 무덤 같다”

대통령실 브리핑룸 98일 만에 열려 李 “공무원 전원 제자리 복귀해야” 두 달 만에 청사 봉황기 다시 게양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던 장소에서 새 정부의 첫 인선을 발표하며 5년 임기를 시작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께 대통령실 브리핑룸(회견장)에 등장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등에 관한 인선을 직접 발표했다. 짙은 남색 정장에 ‘통합’을 상징하는 줄무늬 넥타이 차림이었다.

이 브리핑룸은 파면당한 윤 전 대통령

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곳으로, 이곳의 문이 열린 것은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 2월 26일 유혜미 전 저출생대응수석이 저출생 추세 반등 관련 브리핑을 한 이후 98일 만이다.

다만,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에서 근무하던 정무직 공무원들은 물론, 파견직 공무원도 모두 원소속 부처로 복귀한 탓에 브리핑룸을 제외한 대통령실 청사는 한산한 모습이었다.

이 대통령도 인선 발표를 시작하기에 앞서 “꼭 무덤 같다. 아무도 없다. 필기도 구 제공해줄 직원도 없다. 컴퓨터도 없고, 프린터도 없고 황당무계하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또 “결재할 시스템이 없다. 그래서 손으로 써서 지장을 찍어야 할지, 지장을 찍으려니 인주도 없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지금 고민”이라며 “직업 공무원을 전원 복귀시킨 것 같은데, 곧바로 원대 복귀를 명령해서 전원 제자리로 복귀하도록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용산 대통령실 청사 정문 게양대에는 봉황기가 두 달 만에 다시 올라왔다.

봉황기는 우리나라 국가수반의 상징으로 대통령 재임 기간 상시 게양되는데, 윤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되면서 지난 4월 4일 이후로 게양되지 않았다.

서울=김선욱 기자

외신, 대선 결과 긴급타전… 외교·대북정책에 촉각

AFP “6개월 정치혼란 마침표” NYT “가장 강력한 대통령 탄생”

주요 외신들은 3일 치러진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당선을 일제히 긴급 뉴스로 보도했다.

일부 외신은 6개월간의 정치 혼란에 마침표를 찍는 이번 선거가 한국 민주주의 회복력을 보여줬다고 평가했고, 다른 외신은 이 당선인이 최근 수십 년 한국 역사에서 가장 강력한 권한을 지닌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외신들은 특히 이 당선인이 한미동맹을 강조하면서도 중국과 미국 간 균형 외교를 원한다고 평가하며 중국을 견제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와 마찰을 빚을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AP는 4일(한국시간) 새벽 이 후보의 당선 사실을 전하면서 “어려운 어린 시절을 딛고 불평등과 부패에 맞서 싸우겠다고 다짐하면서 한국의 대표적인 진보 정치인이 된 이재명이 대통령에 당선돼 한국의

젊은 민주주의 역사상 가장 격동적인 장 중 하나가 막을 내렸다”라고 보도했다.

AFP는 “거의 30년 만에 최고 투표율을 기록한 이번 선거로 (한국은) 수개월간 이어진 정치적 혼란에 마침표를 찍게 됐다”라고 평가했다.

WSJ은 “소년공 출신인 이 후보는 한미 동맹 강화, 일본과의 협력, 북한 인권 문제 제기 등 전임 윤석열 정부의 외교정책 기조를 일부 계승하겠다고 공약했다”고 소개했다.

뉴욕타임스(NYT)는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한 점을 거론하며 “이 당선인은 수십 년 만에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갖게 될 한국 대통령 중 한 명이 될 예정”이라고 분석했다.

영국 BBC 방송은 한국이 계엄 사태 이후 ‘혼돈의 6개월’ 끝에 대선을 치렀다면 서 국가를 통합하고 국민들에게 민주주의에 대한 확신을 다시 심어주는 것이 차기 대통령의 중대 과제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연합뉴스

우원식 국회의장은 4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에 제출한 국회의원직 사직서를 결재했다. 의장실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우 의장이 사직서를 결

재한 뒤 사직 허가 내용을 이 대통령 측에 통지했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결재 장면을 담은 사진과 함께 “이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드리며 기쁜 마음으로 국회의원직을 허가했다”고 적었다. 이로써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 수는 171명에서 170명으로 줄어들게 됐다.

서울=김선욱 기자

우 의장 “李 의원 사직서, 기쁜 마음으로 허가”

李대통령 첫 행정명령, ‘비상경제점검TF 구성’ 지시

“민생 살리기, 시급한 당면 과제” 박성재 외 국무위원 사의 반려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취임 후 첫 행정명령으로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통화에서 이날 오후 7시 30분까지 관련 부서 책임자 및 실무자 소집을 지시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는 새 정부의 가장 시급한 당면 과제가 ‘민생 경제 살리기’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또 “재난 및 치안, 재해 관련 안전 문제 대응을 위해 광역·기초 지방자치정부를 포함한 실무 책임자급 회의를 5일 오전 중 소집할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 부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전원이 사임 의사를 밝힌 것과 관련해선 국정 연속성과 비상경제점검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제외한 나머지 국무위원의 사의를 반려했다.

앞서 이주호 국무총리 직무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에게 국무위원 전원의 사의를 표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국정의 연속성과 원활한 업무 재개 시급성을 강조하며 대통령실에서 근무했던 일반직 공무원들도 즉시 복귀할 것도 지시했다.

강 대변인은 “취임식 첫날 대통령실은 물리적 업무 불능 상태”라며 “업무 및 인적 인수인계는 커녕 인터넷망과 종이, 연필조차 책상 위에 놓여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서울=김선욱 기자